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수요일,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2024.10.06 (572호)

판권: 창세기 1:9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지난 주 (9/29)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900.06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시편 147편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다 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0월 13일	10월 20일
유영환	최빅토리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분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방송으로서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유명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저는 그분의 간증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 궁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은 동성애자들이 방송하는 채널이었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그 연예인은 몇달전 간증 프로그램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짙한 화장에 야한 농담을 하며 동성애자들과 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오는 감정은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더 생각을 해 보니 그 모습이 곧 우리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의 결심이 오늘의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 연예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기 의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할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고집센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고집 세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과 의가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출몰 주님을 거역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는 열두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와 12살 난 아이로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기적 사건으로 읽어서 치유와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읽으면 안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1,000이라는 완전수와 곱해져서 144,000이라는 완전수를 만들어 냅니다. 즉 그 숫자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12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죄인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완전히 죽었던 자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구원 받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트퍼슨이라는 배우 겸 가수입니다. 그가 지어서 고백하는 노랫말 가사를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시지요. " (Why me, Lord? ; 주님이시여 왜 저를 구원해 주신 거죠? 제가 아는 행복을 즐길만한, 어떤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는지요? 말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이 제게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건, 주님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걸 낭비하며 살아왔어요.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저를 도와주세요.